▲ 평중리 노변에 있는 권병안 의병장 일가 9충효비

수엽黃水葉, 사손 부이사관 효자 준표俊杓와 배 선행효부 경주慶州 김순례金順禮, 사증손 효자 태환太煥과 배 효부 동복同福 오재윤吳在胤, 차증손 효자 두환斗煥과 배 효부 황간黃澗 견금령甄金鈴이 그 비주들이었다. 비문은 서울대총장·문교부장관 권이혁權彛赫 박사가 짓고 글씨는 국전운영위원장·한국서가협회장 여산如山 권갑석權甲石이 쓴 것이었다. 이들 비주의 충효선행 공적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노무현 대통령과 보사부장관·성균관장·순천시장 등에게서 받은 각종 훈포장과 표창장이 근거하고 있었다.

밤밭골 선영산에는 최존위로 남포공의 조부 진사공進士公 위중偉中과 아들 돈간재 부자 양대를 상하계봉上下繼封으로 이장해 모시고 있었다. 면봉緬封은 바로 한 달 전 4월에 행한 바라 식재된 사초가 겨우 활착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진사공 위중은 예조판서 증영의정 충정공忠貞公 협 의 7남으로 선조 31년, 1598년에 태어나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 되고 광해군 9년, 1617년에 20세로 진사進士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인조 7년 1629년에 32세로 졸하였다. 뒤에 아들 돈간재가 귀히 됨에 따라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되었다. 배위는 증정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 부위副尉 종사宗泗의 딸이고 묘소는 서울 구로구 궁동 선산의 선고 충정공 묘소 우측 후록에 임좌壬坐 합부이고 아들 돈간재가 비문을 지은 바였다. 그런데 이곳 궁동의 선산이 산화山禍로 타성의 소유가 되고 공의 묘소가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후손이 모두 원지에 살아 수호가 어려운지라 이번에 이곳 후손 세거지로 이장을 하게 된 것이었다.

돈간재공 대재大載는 자가 중거仲車이고 호가 돈간재 외에 간은艮隱·소천蘇川·용문산인龍門山人 등이 있다. 광해군 12년 1620년에 나서 인조 24년, 1642년에 25세로 식년시에 나가 생원·진사 양장에 입격하고, 효종 4년, 1653년 별시문과에서 34세로 을과乙科 급제하였다. 승문원에 들었다가 승정원주서注書 등을 거치고 효종 9년, 1658년에 문과중시重試에 또 급제했다. 그러나 당화黨禍로 말미암아 성균관 전적典籍을 끝으로 외직으로 밀려나 전라도 창평현감昌平縣監·전라도도사都事·공산公山현감·대구판판 등의 한직으로 돌다 파직을 당하는 등 불운을 겪었다. 숙종이 즉위하여 형조참의로 발탁되고 승지가 되었으며 경상도순무사로 나갔다가 전라도관찰사가 되고 내직으로 들어와 대사헌·대사간을 거듭 임직하였다. 숙종 5년, 1679년에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엄중처벌하려다 오히려 광주光州로 유배되고 이듬해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평안도 영변으로 이배되었다가 숙종 9년, 1683년에 몽유되었다. 숙종 15년, 1689년에 기사환국으로 다시 등용되어 제학提學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르러 기로사耆老社에 들었는데 그해 4월 22일에 졸해 수는 70세였다. 평생에 종형 영의정 석담공石潭公 대운大運과 정치적 진로를 같이 하여 당론의 승패에 따라 부침과 영욕을 겪었다. 임종에는 조정에서 왕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한다는 소식이 있자 직간으로 사절死節할 일을 종형 석담공에게 부탁하고 또 자제에게 명하여 반대 상소를 받아쓰게 하여 구호口號하다가 절반에 못미처 운명하였다. 서화에 능하고 활발한 저술로 독역수차讀易手箚·중용변의中庸辨疑·사림평요史林評要·남위록南危錄·광산록光山錄·용문록龍門錄·초산록草山錄 등을 남겼다. 배위 정부인 신평이씨新平李氏는 정랑 잠潛의 딸이고 묘소는 본디 경기 시흥군 동면 독산리禿山里 서록 어로御路 서편에 간좌艮坐로 합부되고 종질 제남濟南 환 이 비문을 지었는데 뒤에 이곳이 서울 구로구 독산동으로 개발되어 구로구 궁동의 선고묘소 아래로 이장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이곳으로 그 선고와 함께 면봉케 되었다.

남포공 문중과 지역 유림이 협력하여 이곳에 원사院祠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광주와 전남지역에 특히 연고가 깊고 광산록光山錄 등 저술을 그 유배지 광주에서 기록해 남긴 돈간재공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도모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이번 이장시에는 돈간재의 선고 진사공 묘소에서 나온 곽재槨材, 즉 외관外棺이 매우 후대하고 원형이 완전하여 문화재로서의 보관가치가 충분해 보였다. 이에 권준표씨가 국립대인 순천대 박물관에 기탁, 영구보존을 시도해 보았으나 순천대 박물관에서 이를 수용 소장할 예산 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크게 실망하여, 현재 묘하 재사 처마밑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 글 權五焄>

▲ 면봉한 남포공의 조부 진사공 묘소

▲ 선고 진사공 계하에 면봉된 돈간재공 묘소

▲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진사공의 곽재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4·6배판 1630면에집성된 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 大輔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등 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9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 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